

지역 매 아리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3월18일부터 3월29일 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교통 안전표지판 등 각종 지주형 시설물과 불량 투수관도로 정비하여 보행권 확대하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도·자전거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투수관(도로의 빗물을 땅에 침투하고 빠른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제기능을 못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를 위협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전면적 개·보수를 촉구했다.

김재오 의원은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원상복귀'라는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 1월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홍보 및 용역 등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한 후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함에도 버스회사 노동시간 조기단축으로 버스노선 및 운행횟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버스노선을 원상복귀하라고 주장했다.

안전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 한마당 축제 열어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은성수)는 지난 30일 제7회 정읍시 재능나눔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행사는 재능 나눔을 통한 건전한 봉사활동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정읍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재능 기부에 관심을 가진 시민과 베틀꽃을 즐기러 나온 상춘객 등 2천여 명이 참여했다. 축제에서는 재능 나눔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부스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운영됐다. 특히 20여의 다채로운 재능기부 단체가 참여해 세계 음식 만들기와 귀반사 요법, 제과 제빵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축제에 참여한 어르신은 집·뜸과 물리치료, 시력측정, 돋보기 제작 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은 정읍 전통 놀이와 초콜릿 체험 등을 즐겼다. /정읍=김대환 기자

“나무 심으며 숲의 소중함 느껴요”

고창군, 꿈나무들과 나무심기 행사 열어



지난 29일 오전 고창군 해리초등학교 뒤뜰에서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지난 29일 오전 고창군 해리초등학교 뒤뜰. 어른들은 삽을, 아이들은 편백나무 묘목을 들었다. 적당히 파낸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편백나무 묘목을 넣고, 흙을 팔고루 덮어줬다. 이날 만들어진 편백숲은 '늘푸른 편백숲'으로 이름 붙여졌고, 해리초등학교 전교생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도 함께 자리했다. 자기의 이름이 적힌 명판을 보며 아이들은 틈틈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숲을 잘 키우고 가꾸겠다는 다짐을 했다.

고창군이 '제7회 식목일'을 앞두고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해리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는 해리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공무원, 국립장성숲체원, 고창군산림조합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해 홍가시나무, 편백나무 등 3종, 875본을 식재했다. 또 국립장성숲체원 진행하는 편백

석고방화재 만들기 체험과 산림교육이 함께 진행돼 이번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해리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명도 채 안된 소규모 농촌학교로 제대로 된 녹지공간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고창군과 산림조합 등 지역사회는 학교 주변에 편백숲, 영산홍 꽃밭을 만들고 나무와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은 거리 곳곳에 명품 소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고, 고창읍성 맹종죽림, 선운사 뽕백숲 등 숲의 도시"라며 "모두 함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에 함께하자"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한 업체 고령토 채굴계획 인가 신청... 지역민심 큰 파장

운호리까지 신청... 곰소시장에 큰 피해 예상 주민 반발 움직임도

부안지역에 최근 한 업체가 고령토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서 지역민심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말 A 업체가 전북도청에 부안지역 고령토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도가 현재 부안군청에 관련법령 협의를 요구한 상태로 종합적인 검토 후 최종적으로 전북도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한 업체로 이번이 세 번째 신청이며 종전에는 진서면 석포리 지역에 신청을 한 반

면 이번에는 운호리까지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엔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한 지역은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 36-11번지 의 4필지로 해당 지역은 바다를 낀 해안관광도로에 인접해 있고 천연고갈 내소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고령토 채굴이 이뤄질 경우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소음, 분진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내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서면 곰소시장의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채굴인가가 이뤄질 경우 곰소시장에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피해가 우려되자 운호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진서면 지역 주민 전체가 채굴에 반대하며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호마을 한 주민에 따르면 "천혜의 관광지인 이 지역에 채굴이 이뤄질 경우 운호주민 뿐 아니라 진서면 주민 전체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굴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에 명패 달아 드리기 행사 펼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읍시가 국가보훈처와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활동선우 서부보훈지청장과 보훈단 체장, 사회단체장, 유족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동원 선생은 1907년 한일신협약 체결 이후 1908년부터 스스로 의병장으로 활동했다. 일본군과 교전하고 군자금을 모으는 등 활발히 활약했다. 1909년 9월 6일 일제의 대토벌

작전으로 체포돼 일본군에게 총살, 40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했다. 유 시장은 "독립유공자들의 활동과 희생으로 이뤄낸 독립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직접 명패를 달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평화·통일·번영의 봄’

정읍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 강좌 개강

정읍시가 오늘부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평화·통일·번영의 봄, 대한(大漢)의 역사를 지켜낸 위인'을 주제로 역사 공개강좌를 갖는다. 정읍시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대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이달 19일까지 진행된다. 평일과 토요일 강좌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야간 강좌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다. 강좌에서는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 등 역사적 인물을 통해 우리나라 수난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이와 함께 돌연사 예방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실습과 재난 대비요령 교육도 진행된다. 시는 일본정부가 이웃국가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지속되자 외세침략에 의한 국민 주권침탈의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 시민이 미래 지향적인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자국의 초·중·고교생에게 제국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 회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위변, 일본군 재무장을 위한 일본헌법 개정 촉구, 일본 해상위태대 초계기의 해군 구축함 근접 위협 비행 도발 등이 그것이다. 유진섭 시장은 "미·소 냉전시대 이후 국제안보정세의 다변화로 한반도는 동북아의 안보 중심지가 됐다"며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애민정신을 선양하고 거룩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기리고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강좌는 다음과 같다. △세계 해전사의 영웅 이순신을 지킨 서해 유성룡(최병륜) △임진왜란 공신들의 구국의 총력(유종국) △대한의 역사를 지킨 위인 우당 이회영(조광환) △정읍의 항일 운동가(이갑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한수연) △한민족의 얼을 지켜낸 역사적 선인들(이용찬) △조국의 독립과 영토방어를 품 바친 위인(김일용) △동학농민혁명의 불씨를 살린 기해봉기와 희생자(곽형주)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 사용요령(이은순) △응급처치와 부상자 구급(김정옥) △화재 초동진압 등 재난대비요령(이우경) △민방위 제도과 임무와 역할(오종삼)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내 협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시동

정읍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정읍 시가 어울림플랫폼 기공식이 4월 10일 오후 2시 옛 금강호텔 주차장(청수길 63)에서 개최된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임정수 LH전북지역본부장과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어울림플랫폼(청년주택)은 지난 2017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와 LH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네트워크센터(180㎡)와 청년주택 20세대를 마련한다. 2020년 준공 예정이다. 어울림 플랫폼 1층에 위치하는 네트워크 센터는 마을 투어 정보센터 기능을 한다. 또 원도심과 농촌지역 활동청년 간 창업네트워크를 연계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거점 공간이 된다. 신축되는 청년주택 20세대는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노약자에게 저렴한 주거비와 안정적 주거공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어울림플랫폼(청년주택)사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이뤄낸 사업이다"며 "공공에서 투자해 마련된 기반이 민간으로 과급력이 확대되는 모델을 제시해 다른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기업제안형)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도심 관련 추가 사업을 발굴 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